

국어 부사절에 대하여

- 학교 문법을 중심으로 -

유옥순*

《차 례》

1. 머리말
2. 부사절 교육의 현황
3. 부사절 설정의 한계
4. 부사절 설정의 방향
5. 맺음말

〈요약문〉

국어 접문장 분류 체계에서 부사절 범주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부사절·종속절·대등절을 설정하는 견해이고 둘째는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아 부사절·대등절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견해이다. 셋째는 대등절까지도 부사절로 설정하는 견해이다. 부사절 설정과 관련한 학교 문법의 논의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부사형 어미 설정뿐만 아니라 학계의 폭넓은 논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부사절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부사절과 관련한 논의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게 개정되었고 고등학교 『문법』교과서가 국정 교과서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제7차 교육과정의 틀¹⁾을 유지한 채 문법 교육이 이루어지

* 순천대학교.

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부사절 설정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학교 문법에서 형식적 차원의 부사절 범주 설정은 학생들의 실제 언어수행능력 신장보다는 연결어미 유형에 따른 정리나 현실과 괴리된 이론 교육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의미·기능적 차원의 범주 설정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수식언인 부사절은 비교, 대조, 분석, 분류, 예시, 인과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사학의 주된 관심사이자 글쓰기와 관계가 깊다. 겹문장의 확대 과정에서 의미적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문법 요소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부사절의 명칭과 개념이 보편적 분류체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부사절, 부사형 어미, 종속절, 내포, 종속, 겹문장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보편적인 체계로 확립되지 못한 국어 부사절의 설정이 지니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학교 문법의 설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를 대상으로 겹문장 복수체계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어 교육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학교 문법의 문제점을 부사절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문법은 문법 범주의 개념과 명칭에 있어 피교육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에서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학교 문법이 낯선 문법 용어의 암기와 범주 설정의 이론에 그칠 것이

1) 부사절과 관련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체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과목 체제가 이원 체제에서 일원 체제로 재구조화되는 변화가 있었을 뿐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2012년 개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까지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탐구활동 및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언어수행능력을 강조하는 차원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라 설득력 있는 화법 구사와 논리적 글쓰기를 위한 활동적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7차 문법 교과서 겹문장 체계의 부사절 설정과 관련한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학교 문법 부사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부사절 교육의 현황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형식을 문장이라고 한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주된 골격이 되는 주성분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으로 나눈다. 문장의 짜임은 주성분인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면 ‘홀문장’이라고 하고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홀문장이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더라도 겹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면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으면 절이 된다.

제7차 문법 교과서에서 겹문장은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는데, 안은 문장은 홀문장이 다른 문장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 문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진 문장은 홀문장과 홀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안은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안기는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²⁾ 이어진 문장은 홀문장 두 개가 이어지는 대등성과 주종성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1) ㄱ. 꽃이 예쁘다(홀문장).

ㄴ. 그는 부드럽게 나의 손을 잡았다(홀문장, 겹문장).

ㄷ.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겹문장).

2) 이 연구는 겹문장 체계에서 부사절만 논하고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 서술절은 논외로 한다.

ㄹ. 봄이 오면 꽃이 핀다(접문장).

(1ㄱ)의 예문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홀문장’이고 (1ㄴ-ㄹ)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1ㄴ)은 ‘부드럽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홀문장이 될 수도 있고 겹문장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부드럽게’를 단순한 부사어로 보면 (1ㄴ)은 홀문장이나 ‘부드럽게’를 서술어로 본다면 (1ㄴ)은 겹문장으로 볼 수 있다. (1ㄴ)을 겹문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부드럽게’를 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볼 것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로 볼 것인지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1ㄹ)은 ‘봄이 오면 / 꽃이 핀다.’의 경우에도 접속 관계가 의미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선행절이 후행하는 절에 통사론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보아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절로 여겨 대등절도 부사절로 볼 수 있다고 허용하였다. 이처럼 이어진 문장 모두 부사절로 파악하며 부사절의 범위 설정 문제를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었다.

(2) ㄱ. 길이 비가 와서 질다(종속절 → 부사절).

ㄴ. 비가 오기 때문에, 길이 질다(종속절 → 명사절).

ㄷ. 비가 오는 가운데,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다(종속절 → 관형절).

(2)는 제7차 문법 교과서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종속절)³⁾이자 안은 문장으로 볼 수 있다. (2ㄱ)은 ‘비가 오다’에 부사형 어미 ‘-(아)서’ (2ㄴ)은 명사형 어미 ‘-기’ (2ㄷ)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짜여진 부사절, 명사절,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소위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을 인정하여, 결국 종속적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고

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겹문장 용어를 ‘종속 접속’, ‘종속절’로 병행해서 명칭을 사용하겠다.

한 문법 교사용 지도서(2006: 201)의 복수체계를 허용하여 생긴 혼란이다.
다음은 7차 학교 문법교과서의 문장 분류 체계이다.

(3) ㄱ. 제7차 학교 문법의 문장 분류 체계 -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 부사절, 대등절, 종속절: 비가 와서 길이 길다. → 종속절 분류

ㄴ. 7차 학교 문법의 문장 분류 체계 -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 부사절 포함(종속절), 대등절: 비가 와서 길이 길다. 종속절 → 부사절로 허용

(3ㄱ)은 학교 문법의 접문장 분류 체계에서 종속절을 이어진 문장에 두는 견해를 원칙으로 (3ㄴ)은 종속절을 안은 문장의 부사절로 볼 수 있음을 허용

하는 견해이다. 이는 부사절을 설정하는데 있어 표지인 ‘부사형 어미’가 설정되지 않아 종속절로 분류되었던 부사절이 ‘종속적 연결 어미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은 부사절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범주의 확대로 종속절이 부사절로 허용된 것이다. 학교 문법이 겹문장 체계를 분류하면서 안은 문장은 통사적 관점에서 기준을 세운 반면에, 이어진 문장은 의미적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면서 생긴 혼란이다.

㉔. 7차 학교 문법의 문장 분류 체계 -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 부사절 포함(종속절, 대등절):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대등절 → 부사절로 허용

더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부사절 설정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여 이어진 문장의 대등절 연결 어미까지도 부사형 어미에 포함시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3㉔)처럼 겹문장의 분류 체계에서 이어진 문장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4) [주의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와 같이(달리), -이 없이’와 같은 ‘-이’ 접사의 경우나 ‘-게, -도록’만으로 된 예들을 부사절로 보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앞 3장 용언 어미 활용 체계에서 밝혔듯이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도 이러한 일부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7차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앞 절(소위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면을 인정하여, 결국 종속적 연결 어미를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대등적 연결 어미에 의한 대등절도 부사절로 볼 수 있고 대등절 연결 어미나

국어 부사절에 대하여

보조적 연결 어미도 결국 부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문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006: 201).

상반된 견해를 인정하는 학교 문법의 복수체계는 교육 문법이 갖추어야 할 규범성과 체계성 차원에서 문제를 발생시켜 겹문장 체계의 혼란을 가중 시킴으로써 결국 부사절 체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재설정 논의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제7차 문법 교과서의 부사절과 관련한 긍정적 측면은 부사형 어미를 설정하여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로 전성 어미 체계의 균형을 갖추었으며 국어 지식과 규칙을 학습자 스스로 도출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학교 문법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3. 부사절 설정의 한계

앞서 살핀 것처럼 하나의 겹문장에 대하여 안은(내포) 문장이자 이어진(접속) 문장이라는 제7차 문법 교과서의 혼란스런 겹문장 분류체계는 국어 성립 기부터 내재된 종속 접속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설정되지 못하고 학계의 혼란을 가져 온 것은 최현배((1937, 1971)의 견해가 국어 문법 교과서(1985, 1996)로 그대로 이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 최현배는 겹문장(겹월)을 분류하면서 ‘가진월(포유문)’, ‘별린월(병렬문)’, ‘이은월(연합문)’의 3분 체계로 분류한다. 이 때 부사절을 ‘가진월(포유문)’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등절은 병렬문에 분류한 뒤 종속절은 연합문에 설정하였다. 이은월(연합문)을 설정하여 의미적 주종성으로 세분화하였으나 내포와 종속의 동일 개념을 상하관계로 분류하여 논란을 자초하였다. 일반 문법의 보편적 흐름을 무시하고 전성어미에 부사절 표시인 부사형 어미가 실종되는 불균형적인 문법 기술은 학교 문법에서 부사절이 설정되는 것을 가로막은 채 유지되어 온 것이다.

영문법을 비롯한 인구어(印歐語) 문법에서는 일찍부터 합성문을 중문(重

文, compound sentence)과 복문(複文, complex sentence)으로 구분하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어, 두 절이 결합하여 중문과 복문을 이루는 방식을 각각 병렬(coordination)과 종속(subordination)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대등절(coordination clause)과 종속절(subordination clause)을 구분한다는 것도 일반화된 사실이다(이익섭 2003: 33). 국어 접문장 분류 체계는 영문법에서 동의어로 볼 수 있는 내포와 종속을 별개의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인 시행착오의 결과이다. 영문법에서 종속절은 부사절로 당연히 처리하고 있고 대등절만 부사절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음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내포인지 접속인지에 관한 이전 논의를 살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사절·종속절·대등절을 접문장 체계에서 다 설정하는 견해는 최현배(1937), 정정덕(1986), 허웅(1999), 권재일(1992), 남기심·고영근(2004), 교육부(1985, 1996, 2002)가 있다. 최현배(1937)가 설정한 접월의 가진월, 별린월, 이은월의 3분 체계는 남기심·고영근(2004)의 안은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2분 체계로 재편되었지만 가진월이 안은 문장으로, 별린월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이은월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대응되면서 두 체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가지는 순수한 접속의 기능만을 고려하여 체계화를 시켰고 부사절의 설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종속 접속문과 충돌되는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강미숙, 2006).

둘째는 종속절을 부사절로 보아 부사절·대등절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견해로 유현경(1986), 남기심(1994, 2004), 최재희(1997, 2004), 이관규(1999), 이익섭(2003)을 들 수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부사절과의 통사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부사절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므로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만 인정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과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이다. 최재희(1997, 2004)에서는 종속 접속문을 문 부사절로 보고 접속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내포의 범주에서 다룰 것을 제시하였다. 부사절 중에는 문장 전체와 관련을 가지는 문 부사절이 있음을 말하고 종래의 종속 접속문으로 다루어 오던 문장의 선행절은 후행절을 모문으

로 한 부사절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셋째는 대등절까지도 부사절로 처리하여 결국 부사절 하나만을 설정하는 견해로 서태룡(1979), 이익섭·임홍빈(1985), 김진수(1987), 왕문용·민현식(1993), 임홍빈·장소원(1995), 고광주(1999), 유현경(2002)이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 모두 부사절로 보는 견해이다. 부사절 안에 대등·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을 구분하는 표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의미적 맥락이 문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분명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왕문용(1997)은 대등접속문으로 보이는 문장도 문맥에 따라서는 종속절을 내포한 문장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안은 문장의 체계와 부사절 확대 설정에 관한 논의는 부사절의 범주 확대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분하며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논란이 되고 있다.

4. 부사절 설정의 방향

부사절 범주와 관련한 제7차 교육과정 논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어지는데 형태를 중심으로 부사절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중심으로 종속절 또는 대등절로 볼 것인가의 문제였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대등절까지 부사절로 보는 견해는 일반적이지 않다. 범주 설정과 관련한 개정 교육과정 내용 중에 ‘문법’ 과목의 재구조화는 논의 방향에서 의미가 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글을 읽으며 의미를 구성하는 이해 활동과 실제적인 국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탐구 활동을 위해 ‘독서’와 ‘문법’의 이원 체제를 ‘독서 I, II’의 일원 체제 결합이다. 2012년 개정 교육과정 또한 언어 사용 능력과 교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사소통의 범위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능 차원에서 교과내용이 개정되었다. 또한,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보면 국어 교육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시안까지 학교 문법의 방향이 실제 언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을 참고삼아 부사절 범주 설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법은 흔히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제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언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제7차 문법 교과서에서 문장의 확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식이 아닌 단편적 지식에 그치고 있다. 7차 국정 교과서 내용체제를 검인정 교과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현행 학교문법이 문장의 확대 원리를 품사와 문장 성분 논의에 그칠 뿐 부사절의 작용을 통해 문장의 짜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문법은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 설정을 통해 문장의 구성 원리뿐만 아니라 언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를 문법을 통해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형식적 논의를 넘어서 의미·기능 중심으로 탐구하는 대상 언어의 충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학교 문법은 의미·기능 중심으로 기술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의 과정을 내재적으로 익히게 하는 교육 문법이 되어야 한다(고춘화, 2010: 392). 기존 학교 문법은 문장의 확대를 연결어미 유형에 따라 정리하는 형식적 접근에 그치고 있지만 연결어미라는 표지를 사용하는 데는 진술하는 대상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고 과정이 반영되는 의미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문법에서 겹문장의 확대 과정을 설명할 때는 의미적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문법 요소를 학생들이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명칭과 개념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 문법은 지나치게 형식중심으로 진술되어 있어 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실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글쓰기를 하는 일반

인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다. 문법 기술에 있어 ‘언어의 기술 방향은 직관적 판단대로 의미기술을 전제하고 표면 구조를 도출해 내는 쪽이 되어야 한다(정제문, 1982).’ 절 표지인 ‘어미’의 설정은 형식적 범주 설정에 있어 기준이 되지만 한편으로 문장의 전제와 함의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단순한 종결 어미의 변화만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춘화, 2010).

(5) 종결 어미의 해석

- ㄱ.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 ㄴ. 따스한 바람이 불고 있다.
- ㄷ. 따스한 바람이 분다.
- ㄹ.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 ㅁ. 따스한 바람이 부네.

위의 (5ㄱ)은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는 사태⁴⁾와 ‘그 바람이 따스하다’는 사태를 연결시켜 다른 층위의 복합 사태로 드러낸 것이다. (5ㄴ)은 ‘그 바람이 지금도 따스하게 분다.’는 현재 사태를 나타낸 반면 (5ㄷ)은 바람이 불고 있는 ‘현시성’을 강조하면서 그 바람의 감촉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전제하고 있다. (5ㄹ)은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는 지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5ㅁ)은 구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지금 불고 있는 현장에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5)는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종결 어미의 변화에 지나지 않지만 의미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태 해석과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은 문장의 확대에 있어 수식언인 부사어의 역할은 서술어 문장인 우리 국어에서 의미 표현과 해석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예시이다.

4) 우리들이 겪는 ‘경험’은 언어로 표현되면 ‘어떠하다, 어찌되다, 어찌하다’ 따위로 표현되는 결국은 여러 실체가 포함된 상태, 과정, 동작으로서의 일인 것인데, 이 일을 ‘사태’라 한다(김일웅, 1987).

(6) 문장 차원의 부사어 기능

- ㄱ. 열 사람이 한 목소리를 냈다.
- ㄴ. 한 목소리가 열 사람한테 나왔다.
- ㄷ. 열 사람이 드디어 한 목소리를 냈다.
- ㄹ. 한 목소리가 드디어 열 사람한테 나왔다.

위의 (6ㄱ)과 (6ㄴ)의 의미 차이는 ‘드디어’라는 부사를 넣어보면 분명하게 부사어의 역할과 의미를 구별하게 된다. 하지만 수식언의 특징상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또한 (6ㄷ)은 열 사람의 만들어진 한 목소리라는 ‘성과’를 강조하지만 (6ㄹ)은 한 목소리를 만든 열사람의 ‘노력’을 강조한다. 문장 교육에서 의미의 섬세한 차이를 학생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문장에 표현을 첨가하고 삭제하고 변화시켜 그 차이를 생각하게 하는 활동이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진술이 필수적인 셈이다. 또한, 사태와 사태 간을 관계 짓는 문법 요소의 기능과 사태에 대한 미묘하고 섬세한 해석의 차이가 문장의 확대 과정에서 논리적인 표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밖에 언어 습관이나 섬세하고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갖는 주관적인 성격은 실증적인 논의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7) 사태 관계 짓기

- ㄱ. 비가 오고 길이 질다(시간의 경과, 대등절).
- ㄴ. 비가 와서 길이 질다(인과 관계-원인, 종속절).
- ㄷ. 비가 온 탓에 길이 질다(인과 관계-비판, 종속절).
- ㄹ. 비가 왔으므로 길이 질 것이다(인과 관계-추리, 종속절).

(7)는 모두 ‘비가 왔다.’는 과거 자연 현상과 ‘길이 질다.’는 상태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7ㄱ)은 시간의 경과를 중심으로 진술하여 인과 관계의 결합 정도가 느슨하다. 반면 (7ㄴ-ㄹ)은 인과 관계의 결합 정도가 단단하다. (7ㄴ)은 길이 진 직접적인 원인을 비가 왔기 때문이라는 현상에서 직접

찾고 있다. (7ㄷ)은 비가 온 현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느낌을 함축하고 있고 (7ㄷ)은 비가 온 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를 화자가 추리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문법은 기본 개념과 문법 범주의 내용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개념을 파악해 가는 사고의 과정 및 현상 속에서 필요한 질서를 찾아가는 사고 과정 등을 돕는 과정별 활동이나 도움 장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문법의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장의 확대 활동을 통해 문법의 명칭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의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제7차 문법 교과서에서 부사절에 대한 설명은 ‘부사절’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홀문장이다. ‘절’의 문법 관념으로서의 존재 의미나 의의가 논의되지 않은 채 바로 ‘부사절’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또한, 부사절 찾기,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차이, 부사형 어미와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학교 문법 학습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학교 문법 교육으로는 부사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없다. 부사절을 관찰하고 비교·대조하는 활동을 통해 ‘절’의 의미와 기능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태를 해석하는 사고 과정을 구안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제시될 때 더욱 뚜렷하게 제시된다.

(8) 담화 차원의 부사어 기능

- ㄱ. 드디어 100M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철수에게 지기만 해서 무너진 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왔다. 나는 철수와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탕’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나는 열심히 뛰었다.
- ㄴ. 드디어 100M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철수에게 지기만 해서 무너진 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가 왔다. 나는 철수와 나란히 출발선에 섰다. ‘탕’하는 출발 신호와 함께 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⁵⁾

(8)은 공통적으로 뛰는 정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8ㄴ)은 ‘발에 땀이 나다’는 사태를 추상화하여 그런 정도로까지 열심히 뛰고 있다는 의미가 더해진

5) 고춘화(2010)의 예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다. 즉 (87)은 내가 뛰는 정도를 한정하는 반면 (88)은 내가 뛰는 정도를 ‘발에 땀이 나다’는 부사절로 서술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제시될 때 부사절의 기능과 특성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의미·기능중심의 분류는 서양 문법에서도 형식면으로만 가르려는 논란을 줄이고 쓰기교육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의 논리적 연결인 부사절의 비교, 대조, 분석, 분류, 예시, 인과의 범주를 설정하게 해 주었으며, 이는 과거 수사학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다. 영어의 부사절 분류에서 C.T.Onions(우리말 번역어와 함께 정제문, 2008에서-재인용)은 시간, 장소, 이유·원인, 목적, 결과, 조건, 양보, 비교, 양태로 나누고 있다.⁶⁾ 효과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문법 범주에 소속시키는 시도를 통해 문장과 문장의 연결, 나아가 단락과 단락의 연결을 거쳐 텍스트의 층위로까지 의사소통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서양 문법에서는 형식적인 접근

6) 영어 부사절의 분류

의미적 분류	영어 부사절
시간(Time)	when, whenever, while, before, ere, after, till, until, since, as, as soon as, no sooner...than, as long as, as often as, now, immediately, by the time, the moment, every time, etc.
장소(Place)	where, wherever, whence, whither, whithersoever, etc.
이유·원인 (Reason or Cause)	because, since, as, whereas, seeing that, considering that, etc.
목적(Purpose)	that, so that, in order that, lest.
결과(Result)	(so)...that, (such)...that, so that.
조건(Conditions)	if, unless, on condition that, in case (that), suppose, supposing (that), provided (that), etc.
양보(Concession)	though, although, whether...or, even if, even though, if however, whatever, whichever, etc.
비교(Comparison)	as, as...as, so...as, as...so, as if, as though, than, the more...the more, etc.
양태(Manner)	-

의 한계를 의미 중심 분류를 통해 극복하였는데, 이는 부사절을 형식면에서만 가르려할 때 드러나는 범주설정의 소모적 논란을 줄이고 글쓰기 교육에 생산적으로 활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9) 부사절 문장의 논리적 연결⁷⁾

- ㄱ. 비가 오면 길이 질어 진다(조건-예상 결과1).
- ㄴ. 사람들이 밖으로 다니자면 불편할 것이다(제시-예상 결과2).
- ㄷ.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외식을 덜할 것이다(시간-예상 결과3).
- ㄹ. 외식을 덜하므로 식당에 매상이 줄 것이다(인과-결과4).
- ㅁ. 매상 감소를 대비해서 배달 메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목적-대책).
- ㅂ. 비오는 날 배달 메뉴를 준비한다면 식당은 매출 감소를 줄일 것이다(조건-주장).
- ㅅ. 사람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배달 메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시간-근거).
- ㅇ. 비가 많이 오면 식당에서 배달 메뉴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조건-결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식당에서 배달 메뉴를 준비해야 한다.’란 주장의 타당성을 의미·기능 중심으로 분석했다. 먼저 ‘비가 많이 온다.’란 현상에서 출발하여 이어질 사태를 예상하며 뒤에 이어질 사태를 부사절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한 후 표현의 결합 상황을 논리적으로 연결 짓는다. 이때 부사절은 문장의 확대에 중요한 의미 연결 기능을 한다. 다만, 의미·기능의 분석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사고와 교육의 내용, 활동을 관련시켜 구상하고 진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리라 본다.

7) 고춘화(2010)는 사태관계(사태 간의 의미관계 연결)양상 표현으로 ‘단순연결, 선택연결, 제시연결, 시간연결, 조건·결과연결, 인과연결, 목적·수단연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만든 예문이다.

(10) 문장의 확대 교재 진술 방안(고춘화, 2010)

사고 과정	문법 교육의 내용	구체적 활동
현상 분석	명제 분석	문장 내용의 학인 및 의미 분석 -전제와 함축
사태 해석	사물의 관계 해석 및 관계 짓기	나열, 대조, 비교, 분석, 분류, 예시, 인과, 시간, 조건, 양보 등의 관계 짓기
해석의 심화, 확장	사태간의 관계 확장 해석 -연쇄, 추론	다양한 부사절의 사용 이어질 내용 추론

이처럼 문장의 확대에서 연결 어미의 사용은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분석하고 사태간의 관계를 확장시켜 논리적 표현으로 전체 문맥을 관계 짓기 할 수 있다. 연결어미는 통사적 차원에서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켜 이어진 문장을 만들고 의미적 차원에서 결합된 두 문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 내 주는 기능을 한다. 통사적 기능이 문장을 좀 더 복잡하고 자세한 문장으로 생성하고 구체화시키며 확장시킨다면 의미적 기능은 어미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의미를 통사적으로 결합하여 두 문장 사이의 의미 관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 연결 어미 분류는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어미로 하위분류한다. 부사절 범주 설정에 있어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의미·기능 중심의 어미 설정이 필요하다. 학교 문법은 전제와 함축을 바탕으로 올바른 추론에 이르는 문법적 사고를 익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부사절 설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실제 언어수행능력을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 문법은 낯선 문법 용어의 암기와 이론적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화법과 논리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학교 문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형식적 차원이 아닌 의미·기능적 차원의 범주 설정을 위해서는 어미 설정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객관화된 범주를 설정하기까지는 난맥상이 있어 다음 연구 과제에서 밝히고자 한다. 언어의 본질이나 기능을 따져볼 때 의미나 기능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사절 논의에 관한 명쾌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서양 문법이 라틴 문법에서 시작되어 이 천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글쓰기 교육이 오늘날처럼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 문법이 라틴어 문법 교육에서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고 화법과 글쓰기 교육을 관통하는 의미적 차원에서 부사절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이다. 학교 문법의 체계 설정은 보편적 문법 범주에서 관찰되는 여러 언어권의 예들을 참고하여 문장 단위뿐만 아니라 단락과 텍스트 차원에서 부사절의 명칭과 개념 그리고 범주 설정의 방법론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의미·기능적 차원의 어미 분류 기준에 대한 연구를 위해 배달말학회에서 인구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권의 효과적인 부사절 표현을 정리하여 국어에 접목시키는 실증적인 연구를 함께 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 강미숙(2006), 「부사절과 접속문의 관련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강희철(2008), 「학교 문법의 문장 짜임에 관한 연구 제7차 문법 교과서의 부사
절 문장 확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2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
인적자원부.
고영근(2004),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현행 고등학교 『문법』을 검토하면
서-」, 『우리말연구』 15, 23-50.
고춘화(2010), 『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론』, 역락.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권재일(1992), 『학국어 통사론』, 민음사.
권재일(1989), 「문법 기술에서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글』 205.
김경찬(2001), 「국어 부사절 내포문 구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남기심(1985), 「접속 어미와 부사형어미」, 말 10.
민현식(1999),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10.
박소영(2001), 「한국어 부사절과 접속문 체계 다시 보기」, 『언어학』 34.
방동진(2005), 「학교 문법 국어 복합문 체계 연구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선애리(2011), 「고등학교 문법에서의 부사형 어미 연구」, 충남대 학교 교육대
학원.
송정근(2011), 「학교문법의 부사절 설정과 관련된 몇 문제」, 『인문과학연구』 29.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 이관규(2001), 「국어 부사절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와 그 한계점」, 한국언어학회.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필영(1994), 「대등절과 종속절에 관하여」, 『선처어문』, 22, 서울대 국어교육과.
- 이환춘(2007),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부사절과 접속 부사 내용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승균(2010), 「국어 부사절 설정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정덕(1986), 「국어 접속어미의 의미 통사론적 연구-종속 접속어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제문(1982), 「언어기술의 방향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재희(1997), 「국어 종속접속의 통사적 지위」, 『한글』238, 한글학회.
-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최현배(1971), 『우리 말본』, 정음문화사.

〈Abstract〉

A Study on Adverbial Clauses in Korean

- With a focus on the setting direction of school grammar -

Yoo, Ok-soon(Sunchon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adverbial clause setting in the semantic and functional aspects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s about adverbial clause setting.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bout the category setting of adverbial clause, and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groups: one group that sets all adverbial, subordinate, and coordinate clauses, another group that sets only adverbial and coordinate clauses, putting subordinate clauses under the category of adverbial clauses, and the other group that sets even coordinate clauses as adverbial ones. Those various views have made it difficult to establish a universal system for adverbial clauses, whose confusion reveals problems with school grammar.

The 7th Korean Curriculum contains views of setting adverbial endings, expanding the category of subordinate clauses being allowed as adverbial ones, and including coordinate clausal connective endings in the category of adverbial endings. As those multiple systems are allowed, they add more confusion to the normativity and systemicity of educational grammar but, at the same time, propose some directions for the discussion about the expansion of adverbial clause setting.

In school grammar, the category setting of adverbial clauses should no longer remain at the level of theoretical discussions and start discussions in the aspect of pedagogical methods to expand sentences effectively. It is also necessary to set semantic- and functional-based adverbial clauses for the development and expression of logical thinking since adverbial clauses play important roles in making propositions and meanings specific and clear in the expansion process of sentences as modifiers. It is also needed to cite the name and concept of adverbial clauses and the methodology of their category setting in the aspects of paragraphs and texts as well as units of sentences when setting semantic- and functional-based adverbial clauses.

국어 부사절에 대하여

Key words: adverbial clause, category, adverbial ending, subordinate clause,
complex sentence

논문 접수 : 2015년 5월 10일

심사 완료 : 2015년 6월 4일

게재 확정 : 2015년 6월 8일